

19세기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과 그 기능*

류 해 춘**

< 목 차 >

- | | |
|--|--|
| <p>I. 서론</p> <p>II. 담론의 양상</p> <p>1. 시누이와 올케의 1차 토론</p> <p>2. 시누이와 올케의 2차 토론</p> <p>3. 시누이의 논쟁과 그 중재</p> | <p>III. 여성생활과 담론의 기능</p> <p>1. 여성의 연회와 가사의 창작</p> <p>2. 가사를 통한 토론과 그 중재</p> <p>3. 향촌의 여성문화와 가사의 전승</p> <p>IV. 결론</p> |
|--|--|

<Abstract>

A Study on the discourse and the women-living in
Kisuga(기수가)

Ryoo, Hae-Choon

This thesis attempts to examine the debate and the living culture of Kisuga(기수가) in 19 centuries. Kisuga(기수가) is constituted by nine works. These works are Kisuga(기수가), Dapkisuga(답기수가), Weyooga(위유가), Haejoga(희도가), Pankisuga(반기수가), Zasoga(조소가), Kisoga(괴소가), Kyesungwoguineo(계승우귀녀), Kwonhoga(권호가).

The literary nature of Kisuga(기수가) can be explained through

* 이 논문은 성결대학교 2004년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작성된 과제임.

** 성결대학교 교수

understanding their serial composition. The sister of her husband created Kisuga(기슈가), Weyooga(위유가), Haejoga(희도가), Kisoga(기소가). The wife of her brother created Dapkisuga(답기슈가), Pankisuga(반기슈가), Zasoga(조소가). The woman's mother - in - law created Kyesungwoguineo(계승우귀녀), Kwonhoga(권호가).

These works has been to introduce in 1989. However these has not the research of the theory of work up to now. Therefore I tried to explain the debate in the sister of her husband and the wife of her brother and the living culture in Kisuga(기슈가). This work shows us the many diverse debate and the valid guides to the life. From 1867 to now these works have succeed up to the writer of women in the sister and the wife of Hwayangdong(화양동).

In conclusion, I investigated that Kisuga(기슈가) has the new world through the debate and the women-living culture compared with other works of Kasa(가사) in 19 centuries. In order to study Kisuga(기슈가) it is desirable to widen an appreciative eye for our literature and to deepen the till now study continuously.

I. 서론

19세기 여성가사에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담론을 수용한 『기슈가』¹⁾가 있다. 이 작품은 시누이와 올케가 함께 잔치를 마친 후, 서로의 상

1) 『기슈가』에서 ‘기수(淇水)’는 『詩經(衛風)』의 <죽간(竹竿)>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여자가 시집가서 고향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의미한다. 이 제목과 관련된 『詩經(衛風)』 <죽간(竹竿)>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천원은 왼쪽에 있고 / 기수는 오른쪽에 있으니 / 여자가 시집감이여 / 부모형제를 멀리하누나 (泉源在左 / 淇水在右 / 女子有行 / 遠父母兄弟)

반된 입장을 표출하면서 가사를 매개로 하여 비판과 논쟁을 하고 있어 치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19세기의 가사에는 문답하기나 화답하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종종 있지만, 친족 사이에 일어난 비판과 갈등을 사실적인 담론으로 표출하고 있는 가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수가』는 1867년에 창작된 것²⁾으로 <淇水歌>, <答淇水歌>, <諧嘲歌>, <慰諭歌>, <反淇水歌>, <自笑歌>, <譏笑歌>, <戒省于歸女(警戒詞)>, <勸孝歌> 등 9편의 작품³⁾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들은 작가가 모두 여성이지만 파평 윤씨 가문에서 출가한 시누이의 작품과 다른 가문에서 파평 윤씨 가문으로 시집온 올케의 작품, 그리고 시누이와 올케보다 한 항렬이 높아 어머니뻘이 되는 선산 김씨가 지은 작품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시누이가 지은 작품으로는 <기수가>, <희묘가>, <위유가>, <괴소가> 등이 있고, 올케가 지은 작품으로는 <답기수가>, <반기수가>, <조소가> 등이 있으며, 어머니뻘인 선산 김씨가 지은 작품으로는 <계승우귀여(경계사)>, <권호가> 등이 있다.⁴⁾

2) 『기수가』의 창작연대는 <기수가>의 본문 중에 ‘잇씨가 어늦디고 정묘년 첫 달이랴’(밑줄 필자)고 한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정묘년(丁卯年)’은 『파평윤씨대언공파보』를 참고로 하여 살펴보면 <기수가>를 지은 하당택이 衡達(1847-1918), 晉達(1830-1874)와 남매간인 것으로 보아 1867년이 된다. 그러므로 『기수가』의 창작연대는 1867년이라 할 수 있다.

3) 『기수가』는 <기수가>부터 <권호가>까지 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사마다 따로 이름이 있으나 윤씨 문중(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에서는 이 작품 모두를 함께 묶어서 편의상 ‘기수가’라고 부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9편의 모든 작품을 나타내는 의미로는 『기수가』로 표시하고자 하며, 각 개별 작품을 표시할 때에는 <기수가>, <답기수가>, <권호가> 등과 같이 표시하고자 한다.

4) 이들 자료는 현재 원본이 전하지 않는데, 전해오는 자료로는 1933년 윤석민(1857-1939)이 필사한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단권 단책52장본과, 윤석

지금까지 이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소개와 영인⁵⁾, 작품세계의 개관⁶⁾, 창작과정의 규명⁷⁾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수가』를 통하여 19세기 시누이와 올케가 보여준 담론의 양상을 분석하고 향촌의 여성생활과 가사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이 작품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시누이와 올케가 연회를 마친 후의 의견과 감회를 표출하면서, 가사를 매개로 하여 ‘서로가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고, 서로가 자신들의 견해가 타당하다’는 담론을 펼쳐내고 있는 이 작품들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II. 담론의 양상

19세기 말에 연작으로 지어진 『기수가』는 시누이와 올케 그리고 이 둘보다 한 향령이 높은 선산 김씨가 각자 자신들의 견해와 입장을 가사를 매개로 하여 주장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의 창작 동기는 출가한 시누이들의 친정 나들이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랜만에

주(1883-1953)가 필사한 9편의 가사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 단권 단책 52장본이 있다. 전자의 52장본에 있는 <계승우귀여>라는 작품과 후자의 52장본에 <경계사>라는 작품은 서로 이본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후자 52장본의 <권호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의 52장본의 자료를 참조하고자 한다.

5) 이신성, 「합천화양동규방가사해제」, 『어문학교육』 제11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89, 221-226면.

육화회, 『기수가(淇水歌)』, 해교인쇄사, 1989.

6) 황영심, 「<합천 화양동 파평윤씨가 규방가사>에 대하여」, 『국어과교육』 제10집, 부산교대국어교육과, 1990, 193-203면.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 2000, 56-57면.

7) 류해춘, 「19세기 화답형 규방가사의 창작과정과 그 의의」, 『문학과 언어』 제21집, 1999, 111-132면.

친정에 돌아온 시누이들은 돈을 거두어 친정식구들과 함께 『영사재』⁸⁾라는 재실에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 『영사재』에서 잔치가 과할 무렵, 연장 시누이인 하당택이 첫 가사인 <기수가>를 창작하자, 친 올케인 서흥 김씨가 <기수가>의 내용을 문제로 삼아 <답기수가>를 지으면서 가사를 매개로 한 담론하기가 시작되었다.

가사문학에서 친족사이 담론이란 ‘친족사이에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자와 반대자가 각각 가사를 매개로 하여 논거를 발표하고, 상대방 가사의 논거가 부당하고 자기가 지은 가사의 주장이 정당함을 명백히 밝혀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친족 사이의 담론은 시누이나 올케가 자신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실, 즉 의견이나 주장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인정하게 하여, 상대방이 지닌 반대주장을 설득하고 논박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다.⁹⁾ 19세기의 몇몇 가사가 단순히 문답하거나 화답하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서, 이 『기수가』는 화답하거나 문답하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하는 담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수가』는 시누이와 올케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가사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이해시키려는 대표적인

8) 『永思齋』는 金宗瑞(1390-1453)의 처삼촌인 尹將(세조조)이 癸酉靖亂(1452) 때에 화양동으로 낙향하여 과평윤씨의 과조가 되며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건립한 재실이다. 현존하는 <永思齋重修記>에는 『시경(詩經)』에서 말하기를 ‘효사(孝思)를 길이 하는 지라 효사(孝思)가 범이 되기 때문이니라’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영사재』는 『詩經(大雅)』의 <下武>에 나오는 ‘永言孝思, 孝思維則’이라는 곳에서 ‘永思’라는 의미를 빌려 이름지은 재실이라고 할 수 있다.

9) 이런 점에서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은 전영우가 『국어화법론』(집문당, 1987, 300면)에서 말하는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각기 논거를 발표하고 상대방 논거가 부당하고 자기의 주장이 정당함을 명백히 밝혀나가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토론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가사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슈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누이와 올케의 1차 토론

9편으로 구성된 『기슈가』 중에서 첫 작품인 <기슈가>는 1867년 봄에 창작되었다. 오랜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시누이, 즉 시집간 부인들은 친정으로 돌아와 옛날을 회상하며 여가를 즐기자는 생각으로 친정의 올케들과 함께 연회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중에 한 부인인 시누이가 친정으로 돌아와 『영사재』라는 재실에서 친척들과 함께한 연회의 감흥과 그 연회석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가사를 창작하였다.

이 연회석을 배경으로 하여 처음으로 지어진 <기슈가>는 ‘출가부인 하당덕 소작’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문중 여성들의 잔치에 참석한 시누이들 중에서 최고의 연장자가 되는 하당택은 연회 참석자의 모습과 시누이들과 올케들의 의견 차이를 <기슈가>란 가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러자 하당택의 친 올케인 서흥 김씨가 <답기슈가>를 지어 시누이와는 상반된 올케들의 입장을 표출하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견해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답기슈가>의 필사본에는 작가를 ‘들어오신 부여소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작품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하당택의 친 올케인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의 후예인 서흥 김씨¹⁰⁾

10) <답기슈가>에 보면 ‘호물며 우리양반 한훤선생 후예로서 교남의 명족이요 국년의 디반이라’(밑줄 필자)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한훤선생’은 서흥 김씨인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을 의미한다. 한훤당의 후손인 부인을 『과평윤씨대언공파보』에서 찾아보면 하당택의 바로 친 올케인 서흥 김씨이다. 그러므로 이 <답기슈가>의 작가는 서흥 김씨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지은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기슈가>의 작가가 작품에서 올케들을 조롱한 내용을 문제로 삼아, <답기슈가>에서는 시누이들이 친정에 돌아와 행하는 행실에 대한 감정 섞인 인물평, 시누이들의 시대가문을 희롱하는 가문평판 그리고 지나친 소비의 잘못을 나무라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슈가>와 <답기슈가>에 나타난 이와 같은 상반된 입장을 중심으로 『기슈가』에 나타난 1차 토론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오듯마듯	억디우를 잡혀노코
일촌을 다모쳐서	디연을 비설홀지
체면조로 청했더니	염치업는 이분니들
무류흔줄 모라고서	우줄기며 짜르오니
비위도 조홀시고	빅년이나 사오리라
이말을 노여몰고	자네들도 공논혀여
면면히 쉼혀여	우리들 가진권리
하로노림 배설혀고	양반시매 대접혀소
슈기슈기 흐는모야	우리보기 가관일시
좌상의 노인분네	흔말숨 나리시디
여자몸이 되어나서	방탕혀여 쓸디있나
남활량이 있것마는	여활량이 불가하다
좌중에 흔여편네	니달아 흐는말이
오늘이나 니뜻대로	노라불가 혀엿더니
이 말숨이 어인일고	우리도 이럴망정
세상에 낫다가서	여자직분 하엿거든
야속하다 이룬말숨	숫밖에 불이로다

<기슈가>에서

이 부분은 <기슈가>가 연작으로 지어진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시누이들이 연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올케들과의 견해 차이, 연회석의 어른인 숙모뻘이 되는 노인과의 의견 차이를 통해 시누이와 올케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한 갈등의 원인은 첫째 시누이들이 친

정에 와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하는데 올케들이 염치없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연회석의 어른인 한 노인이 ‘여자 몸이 되어서 방탕하여 쓸티있나’라고 하며 연회석의 지나친 분위기를 경계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 가사에 표현한 것처럼 ‘야속하다 이룬 말씀 솟발에 불이로다’라고 하여 시누이와 올케가 벌써 연회석에서 다투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를 이 가사가 제시하여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서는 잔치를 베푸는 와중에서 큰 갈등이 일어났음을 예시하고 있다. 한 가문 내에서 대규모로 여자들이 모임을 갖고 노는 것에 대하여 출가한 시누이들과 시집온 올케들의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해 차이를 시누이와 올케는 서로 가사를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하면서 또 다른 가사를 경쟁적으로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기슈가>에서 시누이인 하당택이 올케들의 가문에 대한 평판과 인물평을 통하여 올케들을 조롱하고 있는 부분은 올케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사를 짓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들오신이 헤어보즈

강누덕 노파덕아	흐도도롱 슬허마소	
법손덕 희평덕은	명티양반 아닐닌가	
단동덕 병산덕은	한손양반 발명마소	
오촌덕 상지덕은	아들자랑 너무마소	
똥똥덕 디야덕은	세간소리 즈미로쇠	
스촌덕 각손덕은	음전암전 교티마소	
마천덕 김손덕은	동실동실 구술갓니	
지동덕 지동덕은	일가라고 즈세마소	
도진덕 산당덕은	동향동서 즈별호여	<기슈가>에서

위의 인용부분은 시누이인 하당택이 올케들의 친정 가문과 개개인의

인물을 평가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다. 작가는 18명이나 되는 율케들의 가문과 각각의 인물을 등장시켜 그 약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구어체의 특성을 잘 살려 병열과 나열의 기법으로 연회의 현장분위기를 꾸밈없이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시누이들과 율케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킨 연회석의 현장 분위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다보니, 율케들의 인물과 가문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된 언어가 조롱하는 어조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꼼과 조롱이 섞인 시누이의 율케들에 대한 인물과 가문에 대한 평가는 시누이들의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율케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율케인 서흥 김씨는 <답기슈가>를 지어 <기슈가>에 대한 반박의 가사를 짓게 되었다. 여기서는 <답기슈가>을 통해 <기슈가>에서 노래한 율케들의 가문에 대한 평판에 대해 반박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소강남 이분نيا	흐도도룡 어인일고
막비왕토 너른천지	어디가 못솔리오
서울이 상도라도	훈양유학 더욱설고
웅천이 하도라도	제날타시 아닐년가
명티양반 조롱마소	명티라 흐논고기
일흠으로 이랄진디	명경급제 이아니며
월너를 볼죽시면	북헉티슈 그랄소나
조흘시고 조흘시고	명티양반 조흘시고
한손양반 누굴런가	허허이말 가소롭다
싱기즈를 염지혀	심술불칙 군지니가
손안디고 집논고야	그더양반 니여놋소
편편파쇄 씨티림시	

<답기슈가> 중에서

<답기슈가>에서는 <기슈가>에서 시누이가 평한 율케들의 가문에

대한 평판을 뒤집어 놓고 있다. <답기슈가>의 지은이는 이 부분에서 ‘흐도’, ‘명티’, ‘한손’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앞의 <기슈가>에서 올케들의 친정 가문을 비판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답기슈가>에서는 ‘흐도’, ‘명티’, ‘한손’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기슈가>에 나타난 올케들의 가문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슈가>에서는 시누이가 연회를 마친 후에 참석자들을 열거하면서 올케들보다 시누이들이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올케들의 친정 가문을 비판했지만, <답기슈가>에서는 <기슈가>의 그러한 내용을 반박하면서 시누이의 친정 가문(파평 윤씨)보다 올케들의 친정 가문도 우수하다고 설명하며, 또 시누이들의 시집간 시대 가문보다 올케들의 친정가문이 우수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답기슈가>의 작가는 시누이들이 시집간 시대 가문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연이어 서술하여 시누이와 올케 사이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올케가 지은 <답기슈가>에서는 연회석에서 일어난 시누이들의 무절제한 행동에 대한 올바른 가정교육의 의도도 함께 들어 있었다.

우리들 분망중의 이가스 기록기논
 미거흔 식미들을 형스를 가라치니
 시시르 썩어보면 유익흠이 업술소나
 이후에 바라기논 팔목상디 원이로시 <답기슈가> 중에서

이와 같이 <답기슈가>의 작가인 올케는 시누이들이 친정에 돌아와 무절제하게 노는 모습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고치고자 하였으며, 이 가사를 매개로 하여 철없이 재물을 낭비하고 근거없이 양반자랑만 하는 시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이런 내용은 <기슈가>에서 시누이가 올케들의 가문을 낮게 평함으로써 화가 난 올케로 하여금 <답기슈가>를 지어 반박하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시누이들을 흥분시키기에 이르렀

다. 이에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며 올케들의 경솔한 행동을 비판하는 가사인 <위유가>와 <희묘가>를 창작하도록 하였다.

『기수가』에 나타난 ‘시누이와 올케의 1차 토론’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누이와 올케가 1차로 토론하게 된 이유는 1867년 봄날에 『영사재』에서 문중의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 그 연회 모임 후에 시누이인 하당택이 <기수가>를 지어 올케들에 대한 편견과 그들의 가문에 대한 비평을 조롱하면서 주관적으로 서술한 것에 있다. 이에 하당택의 친 올케인 서흥 김씨는 시누이들의 그릇된 인물평과 큰 잔치를 벌이는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답기수가>를 지었다.

‘시누이와 올케의 1차 토론’의 내용은 <기수가>와 <답기수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누이와 올케의 연회 모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인물에 대한 평가, 가문에 대한 평판, 그리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입장차이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다시 한번 시누이와 올케가 가사를 매개로 하여 2차로 담론과 토론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2. 시누이와 올케의 2차 토론

『기수가』에 나타난 시누이와 올케의 갈등은 <기수가>와 <답기수가>의 1차 토론에서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답기수가>에서 올케인 작가가 시누이들에 대한 비판, 즉 그들의 시댁 가문에 대한 조롱과 무절제한 행위에 대한 조롱의 내용을 표현하자, 그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며 참고 있을 시누이들이 아니었다. <답기수가>의 내용이 못마땅한 시누이들은 올케들의 편견을 고치고 그 잘못을 이해시키고자 <위유가>와 <희묘가>를 지었다. 이 두 가사를 통해서 시누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당당함과 문필을 자랑하였으며 올케들을 더욱 조롱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짓는 흐르기지 범류선들 모라도다
 그디들 열가스를 니훈가스 당홀지요
 그디들 빅말흐면 니훈말노 우길지라
 춤으시오 춤으시오 조홀적의 춤으시오
 말지어다 말지어다 그만홀제 말지어다
 그디들 분넌모양 춤아보기 민망흐여
 면면이 위로조로 두어즈 그려니니
 제제이 보온후에 디롱갓치 조분속을
 흐히갓치 널리먹고 부운유슈 지닌일을
 훈우음의 부쳐서라 이마치 훈운후의
 그늬라도 줍담흐면 니아모리 점즌흐디
 별반조쳐 흐오니라 지각업는 그디들은
 빈말노 듯지말고 기피기피 싱각흐소 <위유가> 중에서

높고나셔 기적초로 가스훈장 지엇더니
 알모라 혼여편니 답가를 흐여시디
 면면이 조롱이요 말말이 험담이라
 지주야 잇건마는 버라시 꽤심흐다
 동뉴되논 종시미도 조롱듯기 분흐거든
 흐물며 연중시미 흐감생심 괴소흐니
 니숨숨 싱각흐니 그저잇기 통분흐다
 싹근부실 다시췌여 축도변과 흐즈흐니
 니도로혀 뇌뢰흐여 디강이나 이라리라 <해조가> 중에서

위의 인용문은 <답기슈가>를 읽은 출가한 시누이들이 <위유가>와 <희도가>를 지은 동기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용은 시누이인 하당택이 연회를 마친 후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 심심풀이로 <기슈가>를 지었는데, 그 가사를 비판하는 <답기슈가>를 알미운 울케들이 지어서 출가한 시누이들을 비판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출가한 시누이는 다시 <위유가>와 <희도가>란 가사를 지어 울케들을 하룻강아지

에 비유하고 자신들을 범에 비유하여 올케들의 지각없는 행동을 나무라고 있다.

가사를 통한 시누이와 올케들의 토론하기가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으로 발전해가자, 올케들이라고 이 논쟁을 멈출 수는 없게 되어 버렸다. 출가한 시누이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위수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뉘라도 줍담호면 니아모리 점즌호디 별반조처 호오니라’라는 협박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참고 지낼 올케들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올케인 사촌댁은 다시 <반기슈가>와 <즈소가>란 가사를 지어 출가한 시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케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이르렀다.

우읍을스 니일보소	놀리랄 혼즈만나	
심슨궁곡 적막툇의	두희가 먼젓갓니	
친정의 부모형제	여즈유흥 상스로디	
식떡조츠 그리기논	나흐나 썸이로시	
남천을 우러보니	식떡이 저꺄넨가	
구고님 숙부모님	뵈온지 언제오며	
친동서 종동서들	면면이 그리위라	<반기슈가> 중에서

어와우리 식떡분니	기슈가도 반가올스	
흔번보고 다시보니	화안을 더호는듯	
흔번일고 쏘이라니	우음이 낭낭호다	
심슨궁곡 적막툇의	이것도 장컨마는	
솅솅싱각 절통소회	향우지한 그지업니	
드러보소 드러보소	즈소가를 드러보소	<즈소가> 중에서

<반기슈가>와 <즈소가>는 청주 한씨가 지은 가사인데, <반기슈가>의 제목 밑에 보면 “들오신 부인 스촌떡이 불춤호여 지은 거시라”라는 문구가 있고, 또 <즈소가>의 제목 밑에도 “이 가스도 스촌떡이 혼즈안즈 지은거시라”라는 문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사촌댁은

『영사재』에서 부녀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 때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촌택은 1867년 『영사재』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서양국놈’들 때문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1866년 병인사옥과 병인양요가 있을 때 사촌택의 친정이나 시댁에 누군가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혼자 난리를 만난 사촌택은 시댁에도 있지 못하고, 친정에도 가지 못하여 가야산의 만수동에 거처를 정하고 피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곳에서 시누이들이 지은 가사를 보니 웃음이 나와 <반기슈가>와 <즈소가>를 지었다고 한다. 이제 시누이와 올케들의 가사를 매개로 한 토론하기는 연회석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여성에게까지 급속도로 번져 가게 되었다. 연회석에 불참했던 사촌택이 지은 <반기슈가>에서는 <위유가>와 <해조가>의 내용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시누이들이 연회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인물을 평한 <기슈가>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을 설파하고 있어, 그 내용이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누이와 올케들의 2차 토론’에서는 올케가 지은 <답기슈가>에 비판하는 시누이들이 <위유가>와 <희도가>를 지어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올케들을 비판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과 비꼬를 당한 올케들의 대표로 나선 사촌택은 <반기슈가>와 <즈소가>를 지어 시누이들의 인물에 평가, 가문에 대한 평판, 음식공론 등의 잘잘못을 은근히 비꼬면서 올케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반기슈가>와 <즈소가>가 연회석에 참석하지 않은 올케인 사촌택에 의하여 지어지자, 시누이들은 올케들의 친정 양반자랑과 가문에 대한 평판이 근거 없음을 주장하는 <괴소가>를 지어 가사를 매개로 한 토론하기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되었다.

3. 시누이의 논쟁과 그 중재

<위유가>와 <희묘가>로 시누이들은 올케들과의 가사를 매개로 한 토론하기가 끝났는가 하였는데, 다시 올케인 청주 한씨 사촌댁에 의하여 시누이들의 행위를 조롱하며 비판하는 <반기수가>와 <즈소가>란 가사가 지어졌다. 이에 출가한 시누이들은 올케들의 가문에 대한 평판과 양반의 자랑이 근거가 없음을 논박하는 <괴소가>를 지어, 가사를 매개로 한 가문에 대한 평판과 양반자랑에 대하여 다시 논쟁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지아즈 조홀시고	잇디다시 노라보시	
유식흔 이니말슴	무식흔 군지너가	
흔말이나 아올넌가	문필조흔 남편니게	
즈즈이 희득흔여	기과천선 할지이다	
허물이 잇다히도	곤침이 귀타더라	<괴소가> 중에서

이 <괴소가>에서 시누이는 자신의 친정(파평 윤씨)이 경상도에서 제일 양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의 명문귀족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인 시누이는 위의 인용문에 있는 것처럼 올케들이 이런 명문가문에 시집을 왔으니 만족함을 알고, 남편들에게 허물을 물어서 그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살아가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작품을 통해서 시누이는 올케들이 가사를 통해 내세운 자신들의 친정가문에 대한 평판과 그 양반자랑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시누이들과 올케들의 가사를 매개로 한 토론하기가 서로의 가문에 대한 평판과 양반의 자랑으로 이어져 논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처럼 <기수가>에서 <괴소가>까지 7편의 가사가 지어지면서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토론을 하였는데, 이제 <괴소가>에까지 이르자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이 무조건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그르다고 하여 토론이 점차 논쟁 속으로만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적인 표현은 시누이들과 올케들이 서로 상대방을 무조건 조롱하며 매

도하거나 독설을 퍼붓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누이와 올케, 자신들끼리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찬사와 찬양을 보내고 있다. 이는 가사가 지닌 구술문화로서의 특성¹¹⁾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술문화에 바탕을 둔 담론이 논쟁하는 양상으로 발전해가자, 가문 내에서는 가사를 매개로 한 논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간의 가문에 대한 평판과 인물에 대한 평가로 말미암아 악화된 감정을 진정시킬 담론으로 새로운 가사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큰 어른이 되는 선산 김씨가 나서서 며느리와 딸들에게 교훈이 되는 <계승우귀여>와 <권호가>라는 가사를 지었다. 논쟁의 중재자로 나선 큰 어른은 다름 아닌 선산 김씨로 <반기슈가>와 <즈소가>를 지은 사촌택의 시어머니였다. 선산 김씨는 올케의 입장으로 보면 시어머니와 같은 향렬이 되고 시누이들의 입장으로 보면 친정어머니와 같은 향렬이 된다. 어른의 위치에 있는 선산 김씨는 시집간 딸들에게는 행동을 경계하라고 <계승우귀여>를 지었고, 며느리들에게는 효도하기를 강조하며 <권호가>를 지었다.

이미흔 친부모는	쌀나흔 죄뿐일쇠	
우리집안 팔임니야	이런헝실 업건마는	
조심업시 헛다가는	그랏되기 쉬우리라	
허무리 잇다가도	곤치면 굿뿐이라	
성정이 나걸들랑	참고참고 참아서라	
참기랄 힘을식면	어진부인 되오리라	
이말이 지번흐나	유조할가 바라노라	<계승우귀여> 중에서

어와세상 사람들아	무지흔 까마구도
반포를 헛엇거든	흐물며 사람이야

11) 월터 J. 옹(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71면.

까마구만 못할손야 효행을 힘을써서
 촌초보는 할지어다

<권호가> 중에서

<계승우귀여>라는 작품을 지은 작가는 시댁으로 돌아가는 딸들에게 태교(胎敎), 육아(育兒), 치산(治産)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면서 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권호가>라는 작품을 지어 며느리들에게는 인간의 일들 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누이의 3차 논쟁은 올케인 사촌댁에 의해 <반기슈가>, <즈소가>가 지어지자, 한 시누이가 다시 가문에 대한 평판과 양반의 자랑을 중심으로 한 <괴소가>를 지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올케들의 입장을 나무라고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가사를 통한 담론의 양상이 논쟁으로 이어지자, 사촌댁의 시어머니인 선산 김씨가 나서서 출가한 딸들이 시댁에서 명심해서 행동해야 하는 <계승우귀여>와 며느리들에게는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여 경계하고자 하는 <권호가>를 지어 시누이와 며느리의 논쟁을 중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시누이와 올케들의 길고 긴 가사를 통한 양반자랑과 시누이와 올케의 자존심을 건 토론의 양상은 한 집안의 어른인 선산 김씨의 중재로 마무리가 되었다.

9편으로 구성된 이 『기수가』에서는 가사를 매개로 한 담론에 참여한 여성들의 신분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시누이로 가사의 창작에 참여한 작가는 하당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당댁 이외에 가사로 담론에 참여한 시누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파평 윤씨 가문에서 출가한 여인들이다. 올케로 담론에 참여한 작가는 서흥 김씨와 사촌댁 등이 대표적이며, 그리고 집안의 큰 어른으로 가사를 통한 담론에 참여한 작가는 선산 김씨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고찰한 『기수가』에 나타난 유명씨의 여성작가는 4명 이상이 되어, 현재 국문학계에서 19세기 여성작가로 연구된 작가의 수

3명¹²⁾보다도 많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시기의 작가가 밝혀진 여성작가를 연구하는 작가론의 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9편으로 구성된 『기수가』는 3차에 걸친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토론과 논쟁 그리고 한 향렬이 높은 어머니의 중재과정을 거치면서 창작되고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사는 친정을 방문한 시누이와 시집살이를 하는 올케, 그리고 한 향렬이 높은 선산 김씨 등이 작가로 참여하여, 서로 가사를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서로의 가문과 문벌을 자랑하면서 대결을 펼치고, 토론하기와 논쟁 그리고 그 논쟁을 집안의 어른이 중재를 하면서 완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Ⅲ. 여성생활과 담론의 기능

앞의 장에서는 한 가문의 여성들이 연작으로 창작한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이 19세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재 대화와 토론이 부재하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화와 토론은 공동체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향촌의 여성생활과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는 친가와 시가의 잔치, 즉 부모의 생일, 회갑, 회혼, 혼인 등의 문중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가 되자 남성 중심의 문중 모임에 여성들도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참석하면서, 그 구성원이 점차 많아지자 여성 자신들만의

12) 성기옥, 「고전여성시가의 작가와 작품」,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147면.

독자적인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여 여성들은 자신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을 가사로 창작하여 여성생활¹³⁾의 일부로서 가사를 즐기기도 하였다. 양반 여성이라고 하여 가사를 창작하는 그들의 문화가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며, 개개인의 교육정도, 친가 및 시가의 가풍과 학풍, 경제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들의 가사를 짓는 능력은 큰 편차를 보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여기서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며 한 가문의 여성들에 의해 연작으로 창작된 『기수가』를 통하여 19세기 향촌 여성들의 생활 속에서 가사가 차지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의 연회와 가사의 창작

19세기말에 지어진 『기수가』는 『영사재』라는 재실에 모인 친족 여성들의 연회를 매개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이 가사의 창작동기는 1867년 봄에 시집간 부인들이 고향인 친정으로 돌아와 『영사재』에서 연회를 가지고 잔치를 베푼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랜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시집간 부인들은 친정에서 뜻있는 휴가를 보내자는 생각으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게 되었다. 연회를 마친 후에 하당택은 모임의 취지를 살리고, 다음에 또 연회를 기약하기 위해 <기수가>라는 가사를 지었다.

이말저말 더져두고 놀기만 흥여보시
불상헌다 여즈뎀이 친당을 흥덕하고

13) 김대행, 「생활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5, 225-302면 참조.

이현홍, 「민족문화로서의 국어국문학 연구」, 『국어국문학』제129집, 2001, 21-25면 참조.

동서남북 갈닌후의	사생존망 아단말가	
빅년습만 육천일에	오늘이 몇늘인고	
굿븐싱각 먹지몰고	우음으로 소일흐시	
움병덤병 순식간의	석양이 빗겨시니	
여흥이 미진혀여	파좌를 흐든말가	
그둡의 하당덕이	흔말삼 혀여시니	
이모임이 쉽즌흐니	기록이나 혀여두시	
구람갓치 훗터지면	다시못기 어려워나	
이가스 너여보면	좌중면목 역역혀리	
아모려나 제종들아	다시못기 기약흐시	<기슈가>중에서

위의 인용부분은 <기슈가>에서 연회를 마무리하는 장면과 창작동기가 담겨진 내용이다. 하당덕은 이 연회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가사의 창작동기로 ‘① 영사재의 대규모 모임이 쉽지 않다는 점, ② 대규모 모임 이 모임의 현장을 이 <기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③ 차기의 모임을 소망하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19세기 말, 화양동에서는 문중 여성들의 연회가 있을 때 가사를 창작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문중 여성들의 모임이 아닌 동네 여성들의 연회에서도 가사가 창작된 경우도 있다. 동네 여성들의 연회를 중심으로 가사를 주고받고 화답하는 경우에는 18세기의 <도화전가>와 <반도화전가>¹⁴⁾가 있으며, 그 이후로 많은 <화전가>류의 가사가 화전놀이라는 여성들의 연회를 마치고 난 후에 지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슈가』는 문중의 여성들만이 개최한 연회를 마치고,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편을 갈라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가사를 매개로 토론하고 논쟁하며 연작으로 9편의 가사를 창작하였다는 데서 다른 가사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14)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제7집, 1980, 37-51면.

2. 가사를 통한 토론과 그 중재

9편이 연작으로 지어진 『기수가』에서는 친정을 방문한 시누이와 시집살이를 하는 올케들이 서로 가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서로의 가문과 문벌을 자랑하면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올케와 시누이간의 토론은 1867년 봄날에 『영사재』에서 문중의 부인들이 모여서 연회를 마련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연회를 마치면서 연장 시누이인 하당택은 <기수가>를 지어 또다른 연회를 기약하면서 올케들의 못마땅한 태도를 은근히 비꼬았다. 이에 올케인 서흥 김씨가 시누이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답기수가>를 지었다. 이 작품에 뒤질세라 시누이들이 <위유가>와 <희도가>를 지어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올케인 며느리들을 비꼬고 있다.

이렇게 비꼬음을 당한 올케들의 대표로 사촌택이 나서서 <반기수가>와 <조소가>를 지어 시누이들의 잘잘못을 은근히 다시 비꼬고 있다. 그러자 이에 출가한 시누이들은 다시금 <괴소가>를 지어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올케들의 태도를 나무라고 있다.

시누이와 올케들이 지은 가사들은 모두가 개인의 담론으로 되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견들을 비판하며 조롱하고 있다. 서로가 이처럼 가사를 매개로 하여 비판하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워,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토론하며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한 마을에 살면서 선대의 유업을 받들어 효도와 우애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마을의 재실에 걸려있는 윤택규(1845-1928)가 쓴 <육우당기>¹⁵⁾에는 다음과 같이 효와 우의 동일

15)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동의 『六友堂』이라는 재실에

함과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무릇 우애라는 것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효도를 펼치는 것이다. 효도하면서 우애가 없는 자가 없고, 우애가 있으면서, 효도하지 않는 자도 없다. 효도나 우애는 그 이름은 비록 다르나 뜻은 같은 것이다.¹⁶⁾

이와 같이 이 가문에서는 형제 사이의 효도와 우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시누이와 올케가 연회석에서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서 서로 조롱하며 다투는 내용을 가사로 주고받으며 토론하고 논쟁을 벌여서 한 가문의 여성들의 위계질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감정싸움을 말리고 중재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을 평화롭게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가사를 지은 올케와 시누이들보다 한 향렬이 높으며, 사촌댁의 시어머니인 선산 김씨가 나서서 중재하는 가사인 <계승우괴여>와 <권호가>를 창작하게 되었다. 선산 김씨는 출가한 딸들에게 <계승우괴여>를,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권호가>를 창작하여 주었다. <계승우괴여>는 태교, 육아, 치산, 칠거지악 등을 예시하고 신통하지 못한 신부의 행동사례를 들고 신부가 짓는 허물은 다 친정에 돌아옴을 명심하라는 내용이고, <권호가>는 효는 백행의 근본이므로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효도하고 효행에 힘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선산 김씨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시누이와 올케들을 다독거리려는 집안 추스르기의 일환으로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깊어진 감정의 골을 중재하려고 <계승우괴여>와 <권호가>라는 가사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육우당기>가 걸려 있다.

16) 夫友也者, 因心愛孝之推也, 未有有其孝而無其友, 亦未有有其友而無其孝, 孝與友名殊而義則一也. <六友堂記>에서

이처럼 『기수가』에서는 한 가문 여성들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난 갈등을 ‘가사’를 매개로 하여 토론과 논쟁을 하고 그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19세기 향촌의 여성생활 문화에서 일어난 갈등을 말보다는 글을 사용하여 토론하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선조인 여성들의 생활문화를 한 차원 높였으며, 시누이와 올케의 논쟁을 집안의 큰 어른인 선산 김씨가 중재자로 나서서 그 논쟁을 해소시키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 향촌의 여성문화와 가사의 전승

19세기의 여성가사는 그 양적 성장과 함께 다양한 전승경로를 보여 준다. 영남지역에서 여성가사가 집중적으로 전승되는 중요한 이유는, 촌락단위의 문화권이 존중되고 통혼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남 양반가의 통혼의 조건으로는 혈연, 지연, 학통 등이 선호되었다. 영남의 양반 여성들은 혼인을 할 때에 가사를 가지고 가며, 친정과 시가에 왕래가 있을 때에는 가사를 베껴오기도 한다고 했다.¹⁷⁾

『기수가』도 문중 부인들의 연회를 소재로 하여 창작되었으므로 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연줄에 따라 대등한 집안끼리 통혼 관계를 맺었고, 지체가 대등한 집안 간의 빈번한 결혼은 자연스럽게 문중끼리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향촌사회에서의 지배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19세기의 『기수가』는 문중의 여성들이 연회를 마친 후 자신들의 견해를 가사를 매개로 하여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문중의 큰 어른이 참가하여 가사를 창작하는 데서 마무리되고 있다. 『기수가』에서는 시누이와 올케 간에 표출된 심각한 갈등을 어머니 뺨인 선산 김씨가 직접 중재하는 가사를 지어서 가문의 결속과 효도,

17)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139-170면.

치산 등을 강조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여기서 『기수가』의 창작과정과 한 가문 내의 여성들을 지어진 순서대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수가> (시누이, 하당택) → ② <답기수가> (올케, 서흥 김씨) → ③ <희도가> (시누이), ④ <위유가> (시누이) → ⑤ <반기수가> (올케, 청주 한씨), ⑥ <즈소가>(올케, 청주 한씨) → ⑦ <괴소가>(시누이) → ⑧ <계승우귀여> (어머니, 선산 김씨), ⑨ <권호가> (어머니, 선산 김씨)

이와 같이 『기수가』는 한 가문의 시누이와 올케 그리고 어머니뿐만 큰 어른이 가사의 창작에 참여하고 있어, 19세기에는 가사가 한 가문의 여성문화로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윤석민(1857-1939)이 필사한 『기수가』 52장본의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시집간 손녀를 위해서 이 가사를 필사하였다 한다.

계유칠월 십구일 시족호여 이십이일 필서 황실아 조상수적 두고 분다고 간청호기로 소일숨아 시작호엿더니 (밑줄 필자)

위의 인용문에서는 계유년이 1933년이고, 윤석민(1857-1939)이 이들 가사를 그해 7월 19일에서 7월 22일 사이에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필사자인 윤석민은 <반기수가>와 <자소가>를 지은 사촌댁(청주 한씨)의 양자이니, 사촌댁은 양모가 된다. 그리고 ‘황실아’라는 사람은 창원 황씨로 출가한 필사자 윤석민의 손녀임을 알 수 있다.¹⁸⁾

이런 전승 경로를 보았을 때, 『기수가』는 윤병효(1816-1886)의 집안에서는 선산 김씨, 청주 한씨, 윤석민, 윤규수, 황실이(창원인 황유정의 부인)¹⁹⁾ 등으로 이어져 최소한 5대째 이 가사가 전승되고 있었음이 밝

18) 『파평윤씨대언공파보』, 참조.

19) 『파평윤씨대언공파보』, 참조.

혀졌다.

IV. 결론

19세기의 대표적인 여성가사인 『기수가』는 양반 여성들의 문중 모임에서 제기된 시누이들과 올케들의 견해 차이를 가사를 매개로 하여 토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19세기 여성들의 토론문화는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미숙한 토론문화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과 그 기능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수가』에서는 친정을 방문한 시누이와 시집살이하는 올케들이 서로 가사를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서로의 가문과 문벌을 자랑하면서 토론하는 것을 주된 담론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담론이 3차에 걸쳐 토론과 논쟁 그리고 집안 어른의 중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19세기에 한 가문 내에서 여성들이 가사를 매개로 하여 그들의 생활체험과 그 주장을 토론으로 승화시키는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시누이와 올케의 1차 토론’의 시발점은 1867년 봄날 『영사재』에서 열린 문중의 부인들의 모임에서 친정을 온 시누이가 <기수가>를 지어 올케들을 조롱하고 희롱한 것에 있다. 이에 올케는 시누이가 행한 올케들의 인물평, 가문에 대한 평판 등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누이들의 과소비, 무절제한 행동 등을 지적하는 <답기수가>를 지었다. 시누이와 올케의 1차 담론은 <기수가>와 <답기수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누이와 올케가 문중의 연회 모임을 둘러싸고 일어난 가문에 대한 평판과 인물평에 대한 견해 차이를 서로가 정당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누이와 올케들의 2차 토론’은 올케들이 <답기슈가>를 지어 시누이들을 비판하자, 이에 시누이들이 <위유가>와 <히도가>를 지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올케들의 가문과 인물을 비판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과 비꼴을 당한 올케들의 대표로 청주 한씨는 <반기슈가>와 <주소가>를 지어 시누이들의 시댁 가문과 그 잘잘못을 은근히 비꼬면서 올케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회석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청주 한씨가 <반기슈가>와 <주소가>라는 가사를 지은 것을 보면 각각의 가사들은 한 가문 내에서 시누이와 올케들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담론의 전개와 그 양상에서 마지막이 되는, ‘시누이의 3차 논쟁과 그 중재’에서는 올케들이 2차 토론에서 <반기슈가>와 <주소가>를 지어 시누이들을 조롱하자, 시누이가 3차로 <괴소가>를 지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반자랑과 가문에 대한 평판으로 논쟁을 하면서 올케들의 태도를 나무라고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자 이제는 시누이들과 올케들의 가사를 매개로 한 토론하기가 서로의 가문에 대한 평판과 양반자랑으로 이어져 논쟁으로 나아가,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를 비꼬고 격하시키는 일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담론의 양상이 논쟁으로 이어지자 집안의 어른이며 어머니뻘이 되는 선산 김씨는 출가한 딸들의 행동지침서가 되는 <계승우괴여>와 며느리들의 행동지침서가 되는 <권호가>를 지어 시누이와 올케의 논쟁을 중재하였다. 선산 김씨의 중재로 길고 긴 가사를 통한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토론과 논쟁은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이처럼 중재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아마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문이 시누이들의 시댁 가문과 올케들의 친정 가문이었지, 시누이의 친정이 되고 올케들의 시댁이 되는 파평 윤씨의 가문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수가』를 통하여 향촌의 여성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사라는 담론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는

여성들이 참석한 문중의 연회모임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가사가 창작되는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한 가문 내에서 가사를 매개로 하여 시누이와 올케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가 중재하고 훈계하는 가사를 지어 그 갈등을 풀어내는 토론문화가 성숙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가사의 전승관계를 분석하여 윤병효(1816-1886)의 가문 내에서는 『기수가』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까지 최소한 5대째 10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수가』를 통해서 이름이 밝혀진 여성작가는 4명이상이나 된다. 이는 현재 국문학계에서 19세기 이름이 밝혀진 여성작가인 3명보다도 더 많아, 이 작품이 유명씨의 여성작가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기수가』는 그 작가가 하당댁, 서흥 김씨, 청주 한씨, 선산 김씨 등으로 분명하고, 작가들이 모두 한 가문의 여성들이라서 19세기 여성가사의 작가층과 향유층을 연구하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수가』는 19세기 여성가사로서는 특이하게 9편이 토론과 논쟁, 그리고 중재라는 담론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담론에는 향촌의 여성문화와 가사의 역할을 담고 있어 앞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여성가사(Kasa of women), 기수가(Kisuga), 담론(Discourse), 토론(Debate), 논쟁(Argument), 시누이(The sister of one's husband), 올케(The wife of one's brother), 여성작가(The writer of women)

참고문헌

『淇水歌』

『坡平尹氏代言公派譜』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김대행, 「생활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5.

나정순(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1.

류해준, 「19세기 화답형 규방가사의 창작과정과 그 의의」, 『문학과언어』 21집, 1999.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대학원(박사), 2000.

육화회, 『기수가』, 해교출판사, 1989.

윌터 J. 옹(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이동영, 『가사문학논고』, 부산대출판부, 1987.

이신성, 「합천화양동규방가사해제」, 『어문학교육』 제11집, 1989.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제7집, 1980.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이현홍, 「민족문화로서의 국어국문학 연구」, 『국어국문학』 제129집, 2001.

이혜순(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전영우, 『국어화법론』, 집문당, 1987.

황영심, 「〈합천 화양동 파평윤씨가 규방가사〉에 대하여」, 『국어과교육』 제10집, 1990.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